

세계화의 위기 《이슬람으로 떠나는 여행》

글_이경아(번역가)

여기 한 노장 인류학자가 있다. 이 노학자는 지금으로부터 6년 전 발생한 9·11 테러 이후 이슬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했다. 이 의문의 해답을 찾기 위해 그는 전 세계 이슬람 국가를 방문해 각 계각층의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보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 긴 여정을 시작하기 직전 그와 뜻을 같이 하는 젊은 대학생들이 이 여행에 합류하기까지 했다. 이들은 국제정세에서 이슬람의 대극(對極)에 위치한 미국에서 나고 자란 대학생들이었다. 마치 천지를 떠돌며 진리를 논하고 세상의 이치를 탐구하는 현자와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과 같은 이 다섯 사람들의 이슬람 세계 여행이 마침내 《Journey into Islam: The Crisis of Globalization》(Brookings Institution Press, 2007)이라는 한 권으로 책으로 탄생했다.

이 책의 저자인 아크바르 아메드는 워싱턴 소재 아메리칸 대학의 이븐 할둔(Ibn Khaldun) 이슬람 연구회 회장이자 브루킹스 연구소의 방문 연구위원이다. 찰스 왕자와 부시 대통령의 이슬람 관련 자문관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아크바르 박사는 이 시대에서 이슬람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이슬람 세계는 세계화와 서방 세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이슬람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의 해답을 구하고 싶었다. 이런 심오한 질문의 해답을 구하는 방법으로 노학자가 선택한 길은 동남아시아와 중동의 이슬람 국가를 찾아가 직접 이슬람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의 삶을 관찰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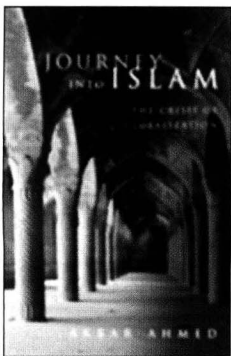
는 것이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이슬람에 대한 편견과 오해는 무엇인지, 이슬람 사람들이 과연 세계화에 부정적인지, 이슬람 여성들은 억압적인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 등 일반인들이 이슬람에 대해 궁금해 하는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구하려 노력했다.

저자는 책 속에서 세 가지 유형의 이슬람 세계관 모델을 소개하고 있다. 바로 신비주의적인 아지메르(Ajmer), 이슬람 정의를 위해 투쟁하는 데오반드(Deoband), 이슬람 세계의 근대화와 전 지구적 편입을 주장하는 알리가르(Aligarh)이다. 저자는 직접 경험한 이슬람 사회를 이 세 가지 유형에 적용하면서 앞으로 이슬람 세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세 가지 유형 모두 각각의 장단점이 있지만 저자는 미래에는 현대적 민족주의와 국제적 경험을 기반으로 근대화를 추구하는 알리가르 모델이 성공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로서는 근본적으로 폭력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데오반드 유형이 이슬람 사회에서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

《이슬람으로 떠나는 여행》이라는 책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책은 궁극적으로 기행문이다. 이슬람이니 세계화니 테러니 하는 단어만 들어도 신문 국제면 기사처럼 딱딱한 글이 떠오르지만 이 책은 그렇지 않다. 이슬람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현대를 살아가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얼마 전 탈레반 사태로 우리 사회는 한 차례 혼란을 겪었다. 우리는 이슬람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는가? 우리가 아는 사실이 과연 옳은가? 《이슬람으로 떠나는 여행》에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원 제 《Journey into Islam: The Crisis of Globalization》
출판사_Brookings Institution Press



English

《악마의 사전》을 능가하는 해학과 기지, 풍자의 어휘사전 《교양인 필독사전》

글_성귀수 (번역가 · 시인)

세상에는 그 제목이나 저자의 이름만 들먹여도 주위가 온통 환해지고 정신이 절로 가다듬어지는 것 같은 위용 찬란한 책이 있는가 하면, 오래된 서지 목록의 어느 한 귀퉁이나 헌책방 낡은 상자 속에 처박힌 채 일부러 책장을 들춰보지 않고서는 그냥 지나쳐버리기 십상인 책들도 있다.

그런데 책의 세상이 신기하고 재미있는 것은, 수십 년, 길게는 수백 년 그렇게 처박혀 죽은 듯 잠들어 있다가도 아주 우연한 계기로 우리 눈을 번쩍 뜨게 해주는 책들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는 점이다. 너털너털한 책이 그 자체로 보석일 수 있고, 퀴퀴한 도서관의 문헌학자가 <인디애나 존스> 저리가라 할 보물탐험가일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번에 소개할 책도 내게는 작지만 반짝거리는 보석처럼 다가와, 마치 보물찾기에 성공한 아이처럼 즐거워할 수 있게 만들어준 책이다. 원제의 'gens du monde' 라는 표현은 원래 상류사회나 사교계 인사를 일컫는데, '궁정과 장안에서 두루 활용할 수 있는 윤리교본' 이란 표현이 일종의 부제로 붙는 걸 보면, 좀 더 보편적인 의미의 '교양인' 으로 재해석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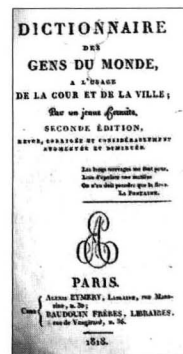
저자로 말하자면, 알렉상드르 보두앵이라는 이름만 일부 자료를 통해 전해질 뿐, 그가 누구인지, 과연 실존 인물인지조차 전혀 기늠할 수가 없다고 한다. 그 대신 서문에 구구절절 늘어놓은 자기소개가 무척이나 당차고 흥미롭다. "나는 나이도 어리고 배운 것도 없는 일개 젊은이임을 당당하게 선언한다. 아울러 바로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재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이제부터 박학다식한 어르신들을 한 수 가르치고자 한다." 일개 '젊은 은자(隱者)' 를 자처하면서 상류사

회의 세련된 교양인들을 대놓고 가르치려는 저자의 거침없는 기개와 재치는 어휘사전이라는 간명한 형식에 실려 유감없이 발휘되는데, 그 촌철살인의 입담을 잠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유행’ : 겨냥하는 목표가 수시로 바뀜으로써 그 위력이 결코 수그러들 수 없는 법칙. 유행의 변화란 부자의 허영에 부과하는 일종의 세금이다. ‘문학’ : 천재가 경작하지만, 거기서 나오는 수확물을 맛볼 자격이 없는 서리꾼들에 의해 끊임없이 유린되는 텃밭. ‘바람기 있는 여자’ : 연인들이 한 잎 두 잎, 잎을 따다보니 남편에게는 가시밖에 남아 있지 않은 장미. ‘정치인’ : 자기를 산 사람들을 팔아서 잇속을 챙기는 자. ‘연금술’ : 예술 아닌 예술. 처음엔 사람을 학자로 만들었다가, 그 다음엔 거짓말쟁이로, 마지막엔 거렁뱅이로 만드는 회한한 기술. ‘천문학’ : 인간의 정신이 얼마나 위대한지, 인간 자체가 얼마나 왜소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학문.”

한두 줄의 짧은 경구에서 다소 긴 요설에 이르기까지, 단순한 풍자 차원을 넘어 철학적, 사회학적 사색의 깊이마저 보여주고 있다. 세월의 무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사회까지 제 손아귀에서 너끈히 가지고 놀만큼 톡톡 튀는 아포리즘들... 신대륙에 엠브로스 비어스의 《악마의 사전》이 있다면, 시기상 그보다 백여 년이나 앞서, 그를 능가하는 수준의 해학과 기지, 풍자가 구대륙에 펄펄 살아 있었음을 이 작은 책자는 웅변으로 증거하고 있다. **한글**

원 제_ (Dictionnaire des gens du monde)
저 자_ anonyme
출판사_ Eymery & Baudouin



French

인간의 고민과 모순을 읽는 재미, 평전을 읽는 매력 《물리학자 막스 플랑크》

글_홍순철 (북코스모스 에이전시 대표)

‘독일은 노벨상의 나라’ 2007년 노벨상이 발표되자마자 독일의 한 주요 일간지는 헤드라인기사 제목을 이렇게 뽑았다. 2005년 테오도르 헨쉬의 노벨물리학상 수상에 이어, 페테르 그뤼네르크와 게르하르트 에르틀 등 독일 과학자들이 각각 2007년 노벨물리학상과 화학상 수상자로 발표되면서 이제 현대 과학의 주도권이 미국에서 독일로 넘어갔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누가 그리고 무엇이 독일을 과학 강국으로 만들어내고 있을까? 단일 연구소로는 최다의 노벨 과학상 수상자를 내고 있는 독일의 과학 연구 재단 막스 플랑크 재단(Max Planck Gesellschaft)이 바로 그 역할을 담당해내고 있다. 양자역학을 발견해 1918년 노벨물리학상을 수상한 독일의 물리학자 막스 플랑크의 이름을 따서 만든 이곳 과학 연구재단은 ‘노벨상 사관학교’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놀라운 과학적 업적을 만들어내고 있다.

과학자로서 막스 플랑크의 업적은 위대했지만, 한 인간으로서의 막스 플랑크의 삶은 그리 녹록치 않았다. 너무나 잔인하게 한 인간의 삶이 자신의 계획과는 전혀 별개로 결정되는 일들이 자주 벌어진다. 현대물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막스 플랑크의 삶 또한 그랬다. 그는 과학자가 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았지만, 결국 과학자가 되었고 1918년 과학자로서 최고 명예라고 할 수 있는 노벨물리학상까지 수상했다. 그가 발견한 ‘양자역학 이론’은 과거의 세계관을 몰락시키고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는 도화선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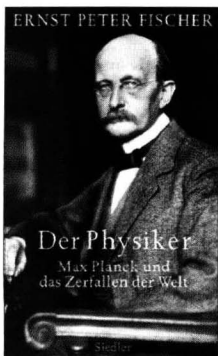
독일의 가장 저명한 과학 평론가이자 저술가인 에른스트 페터 피셔가 2008년 막스 플랑크 탄생 150주년을 앞두고 쓴 기념비적인 평전을 통해 고민으로 가득 차 있었던 한 위대한 과학자의 삶이 극적으로 재탄생된다. 1958년 탄생부터 1947년 사망까지를 6개의 장으로 나누어 묘사되고 있는 막스 플랑크의 인생은 그야말로 모순 그 자체였음이 발견된다.

막스 플랑크는 아인슈타인과 마찬가지로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것을 좋아했으며 음악가가 되기를 원했을 정도로 음악적 재능이 뛰어났다. 그가 대학에서 물리학을 전공하게 된 것은 정말 우연에 가까웠고, 보수적인 집안 환경과 막스 플랑크 자신이 걸어가고자 했던 길은 자주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

“빛은 파장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각각 독립된 에너지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는 양자역학 이론은 세상을 바라보는 과학적 시선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했지만, 그는 이렇게 위대한 과학적 발견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신과 세계를 의심했다. “내가 발견한 것은 쓰레기 같은 것이거나, 아니면 뉴턴이 중력을 발견한 것과 마찬가지로 엄청난 것일 것이다.”

세계가 막스 플랑크를 바라보는 시선은 존경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정작 막스 플랑크 자신은 스스로에게 지나치게 잔인했다. 그의 아들 또한 히틀러 암살에 연루되어 처형당하는 등 그의 인생은 그들로 가득 차 있었다. 위대함 뒤에 가려진 한 인간으로서의 고민과 모순을 읽는 재미, 평전을 읽는 매력을 가득 느끼게 하는 책이다. **★**

원 제 《Der Physiker》
저 자 에른스트 페터 피셔
(Ernst Peter Fischer)
출판사 Siedler
쪽 수 345쪽
출간연도 2007년 9월



Germany

남자들의 로망을 그린 '삼겹살에 소주' 같은 소설 《코끼리의 등》

글_윤덕주 (엔북 대표 · 번역가)

안정된 부동산회사에서 부장으로 일하는 중년 남성이 있다. 회사에서는 능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둔 가정으로 가정도 화목하다. 그러던 어느 날, 폐암 말기로 앞으로 반 년 밖에 살 수 없다는 의사의 선고로 그의 인생이 통째로 흔들리기 시작한다. 갑작스런 종말에 그는 고통스럽게 목숨을 이어가는 식의 치료를 단호히 거부하고 인생의 마지막을 스스로 준비하기로 마음먹는다. 아들에게만 자신의 상태를 알리고 다른 가족에게는 비밀로 한 채, 첫 사랑의 여인도 찾아보고, 고등학교 친구도 만나보고, 연을 끊었던 형과도 화해한다. 마침내 회사에서 쓰러질 정도로 상태가 악화되면서 아내도 사실을 알게 되지만, 처음에는 치료 거부를 따지던 아내도 남은 삶에 충실하고 싶다는 남편의 말에 수긍하고 끝까지 동반하기로 마음먹는다.

소설 《코끼리의 등》 줄거리다. 사회와 가정 양쪽에서 인정과 사랑을 받는 정점에 섰을 때, 무기력에 몰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사나다운 모습으로 최후를 맞는다. 소설과 드라마 모두 히트한 《하얀 거탑》의 줄거리를 떠올려 봐도, 대략 이런 구도가 '남자들의 로망'이라 할 수 있겠다.

뻘하다면 뻘하다. 심지어 몰래 만나왔던 애인과 아들이 사이 좋게 저녁을 먹고, 예쁜 딸은 변함없이 자신을 사랑해주고, 속 깊은 아내는 그 모든 것을 이해해준다. 직장 동료들마저 그의 죽음을 슬퍼해마지 않는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 말도 안 된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외모도 실력도 그저 그런 여자가 꽃미남 재벌 3세의 구애를 받아 사랑과 사회적 성공을 동시에 이룬다는 술한 히트작의 줄거리는 말이 된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 소설은 비유하자면 '삼겹살에 소주'이다. 그리 맛있는 것도 아니고 건강에도 좋지 않지만, 때때로 위안이 되는 음식. 것처럼 회사에서 위아래로 눈치나 보다가 집에 오면 돈 버는 기계 취급이나 받는 남성들에게 위안을 주는 소소한 판타지가 《코끼리의 등》이다. 작가 자신도 부정하지 않는다. "이 작품은 남자의 망상소설"이라고 한 잡지 인터뷰에서 잘라 말한 바 있다.

책에는 시한부를 선고받고 아내보다 애인에게 그 소식을 먼저 알리는 주인공이 나온다. 그 장면에 대해 인터넷을 통해 불쾌와 분노를 드러내는 여성 독자도 적지 않다. 그러나 남성들은 그 장면을 이해한다는 반응이다. 죽음을 깨달았을 때 묵묵히 무리를 떠나 홀로 죽을 자리를 찾아가는 코끼리처럼, 가족에게는 자신의 약한 모습을 드러내고 싶지 않다는 마음임을. 남자에게는 남자로서의 삶의 무게와 시야가 있다. 최소한 남자들은 그렇게 믿고 살아간다. 물론 그런 것을 여자들이 알아주었으면 하는 바람조차 남자들의 로망에 불과할지도 모르겠다.

지난주에 먹었던 삼겹살에 소주를 이번 주에도 또 먹듯이, "뻘한 얘기잖아" 하고 읽다가 끝내 눈물을 흘리고 마는 사람이 적지 않은 모양이다. <산케이 신문>에 연재되었던 《코끼리의 등》은 연재 당시부터 화제를 모았고, 올해 10월에는 영화로 개봉되어 인기를 더하고 있다. 영화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한 영화사에서도 판권을 사들여 영화를 만드는 중이라고 한다. **★**

Japanese

원 제 《象の背中》
저 자 아키토모 야스시(秋元康)
출판사 후쇼샤(扶桑社)

